

경제

KIA 기아차 광주경제 이끈다

(상) 광주 제조업 1번지

매출·수출 탄탄...지역경제 버팀목



광주시 서구 광천동 기아차 광주공장 전경. 지난 1998년 현대차로 인수, 이듬해 기아차 광주공장으로 출범한 뒤 36만평의 부지에서 쏘울과 카렌스, 스포티지, 봉고트럭 및 대형버스 등을 생산, 글로벌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타이거즈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연승하면서 광주가 들쭉이 있다. 월 1만대 이상 수출하는 '쏘울 대박'으로 광주가 기사화되고 있다. '기아차 효과'로 표현되는 광주경제의 현주소다. 광주경제의 선두 주자인 기아차의 위상과 주요 제품을 차례로 소개한다.

'쌀 20kg들이 2천220포대, 돼지고기 등 육류 1만1천400kg.'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지난달 구내식당용으로 광주 지역에서 사들인 음식 재료 구입 내역이 가운데 일이다.

실물 경기가 침체된 올 상반기, 기아차 광주공장의 260여 협력업체들은 불황을 몰랐다. 인기 수출차종인 쏘울의 인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수출 백오더 물량(계약 이후 출고를 기다리는 차량)만 2만1천대에 달했다. 연일 계속된 특근·잔업으로 월세없이 돌아갔다. 덩달아 인근 상가도 북적였다.

기아차 살면 주민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기아가 위기면 지역 경제가 위축된다는 말이 나온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광주 제조업 1번지로, '소비도시'광주를 '산업도시'로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매출·수출을 비롯, 고용효과 등 직간접적 시너지 효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주역으로, 경기 침체로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어서다.

지난 1998년 12월 현대차에 인수

스포츠지·쏘울 '대박신화'... 협력사 활기

타이거즈 KS 우승엔 시너지 효과 '쑥쑥'

되면서 이듬해 6월 출범한 기아차 광주공장은 연간 42만대의 생산체제를 갖추고 신개념 CUV인 쏘울을 비롯, 베스트셀링 소형 SUV인 스포티지와 카렌스, 봉고트럭 등을 생산, 광주 경제를 이끌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30%. 광주 제조업 매출액의 26.3%(5조1천억원)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광주의 지난해 전체 수출액 94억1천200만달러의 24.1%(22억7천300만달러)를 책임지고 있다.

올 8월까지 수출액도 광주 수출액 52억2천만달러의 24%(14억8천

800만달러)에 이른다.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없어서 못 파는' 쏘울을 비롯해 스포티지와 화물차 등을 수출해 벌어들인 것이다.

이것은 완성차 기준일 뿐이다.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고용 인원은 1만962명으로, 지역 제조업 총 고용인원의 17.5%에 이른다. 또 260여개 협력업체에서 구매했던 부품·물품만 1조2천억원(41%) 어치에 달한다.

기아차가 파업이라도 하거나 파업 사태가 장기화될 때마다 인근 식

당·백화점·슈퍼에서는 "망하게 생겼다"는 하소연이 터져나온다.

광주시가 지난 2006년부터 '기아차 사주기' 등 기아차 살리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기업의 발전이 지역 발전과 궤를 함께 한다는 판단에서다. 기아차는 61억7천7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해 광주 시 지방세 납부실적 1위를 차지했다.

이뿐만 아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사회공헌·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각별하다. 노사 공동으로 나눔장터를 열고 소년소녀 가장돕기, 사랑의 쌀나누기 행사, 설 차례음식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빠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기아타이거즈의 경우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노리면서 불경기로 위축된 지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데 한몫하고 있다.

/김지훈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양제철 車 강판기술 日서 자랑

오늘 도요타 본사에서... 차세대 고강도 제품 설명회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일본 최대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 자동차에서 독자 개발한 자동차용 철강 제품을 선보인 다.

도요타에 자동차용 강판을 장기 납품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광양제철의 자동차 강판 기술이 세계 최고에 도달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20~21일 일본 도요타 본사에서 양사 경영진과 기술진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제철에서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 설명회를 개최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올 1월 사상 처음으로 도요타에 자동차용 강판 공급을 시작한 포스코가 내년 이후 제휴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전시 품목은 ▲차세대 고강도 자동차용 강판인 'AHSS'(Advance High

Strength Steel, 60kg급 고강도 GA강판) ▲'트립강종'(고강도강판, 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

▲'트립 강종'(초고강도 강판, TwipTwinning Induced Plasticity) ▲ 자동차용 강판 품질의 핵심인 미려한 부분에서 세계 최고 등급인 'GI에이스' 등급을 받은 아연도금강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립강종은 일반강에 망간(Mn)을 첨가해 연신율(늘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비율)을 높인 강판이다. 옛가락처럼 끈 형태로 일반 빗줄처럼 유연하게 휘어지면서 강도가 센 제품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이 세계 최초로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했다. 트립강종은 탄소 실리콘 망간을 첨가해 강도와 연신율을 동시에 확보한 강이다.

포스코는 또 기술의 '적기공급(JIT, Just In Time)'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고객맞춤활동(EVI, Early Vendor Involvement)'이라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도요타에 소개한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2000년 초부터 자동차 강판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과 투자를 집중, 전 세계 15대 메이저 자동차사에 자동차용 강판을 공급해 왔다.

광양제철소는 도요타 장기 납품이 성공하게 되면 앞으로 일본 내 다른 업체들의 철강 수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외국 시장 개척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광양제철소는 이를 위해 자동차용 강판 생산 규모를 연간 600만에서 오는 2010년~2012년에는 800만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지훈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융합·車 산업에 IT 날개 단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T융합 산업 육성 토론회'

호남경제권에 150억 들여 기술·인력 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호남권 지역 전략산업인 광융합, 자동차, 정보가전 산업에 최첨단 IT기술을 융합·연계,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9일 "오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5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호남지역 전략산업에 IT기술과 연구원의 인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TRI는 이를 위해 맞춤형 단기 및

중기상품 개발, 추가기술 개발 등 지역산업체의 기술적 요구나 사업화 과정의 애로사항을 오는 11월까지 수렴해 단계별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2014년까지 매년 30억원씩 모두 150억원을 지원하며, 산업체가 요구하는 IT제품까지 직접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ETRI는 21일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열리는 'IT융합 지역산업 육성을 위

한 토론회'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는 정보가전·조선·자동차 분야 등에서의 IT기술 융합 방안 등에 이진곤 삼성광전자 상무, 임채홍 현대삼호중공업 부장, 최광목 현대오일에너지시스템즈 팀장 등이 주제 발표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한다.

최민기 ETRI 원장은 "ETRI 호남권연구센터를 지역 거점 R&D센터로 적극 육성하고, IT융합 산업의 육성 방안 마련 및 호남지역 산업체와의 기술적 연계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자동차 업체 옵션 끼워팔기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옵션 끼워팔기 관행을 제동을 걸 방침이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19일 "소비자가 조수석 에어백을 갖추려면 같은 차종에서 최고급형을 선택하도록 선택사양(옵션)을 제한하는 등의 옵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조만간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초부터 현대·기아

차, 지엠대우, 르노삼성 등 자동차업체들의 옵션 끼워팔기 관행을 조사했으며, 이르면 이달 안에 제재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자동차업체가 '기본형' 혹은 '고급형' 등으로 각종 옵션을 묶어 제공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시장조치할 예정이다.

Table with economic indicators: 코스피지수 1,649.07 (+8.71), 코스닥지수 508.95 (+0.69), 금리 (국고채 3년) 4.54% (-0.02), 원·달러 환율 1,171.00원 (+6.50)

광주 외국인투자업체 400억대 수주

(주)필로스씨엔에스

광주 평동산업단지의 외국인투자업체인 (주)필로스씨엔에스가 최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2009 국제표면처리 및 도장기술전시회'에서 자동차 부품, 금형, 전자제품 등 관련 업체들과 거액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 (주)필로스씨엔에스는 타타를 나노 열처리 신기술을 접목한 공구를 출품해 3일 간 400여명의 계약을 따냈다.

필로스씨엔에스는 세계적인 타타를 나노 열처리 업체인 미국 필로스 테크놀로지사가 광주에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특수질삭 공구, 명품 칼, 미용가위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시는 필로스테크놀로지사와 지난해 3월 명품칼·가위 및 열처리 신기술을 접목한 공구 투자 MOU를, 지난 7월 제1회 지역투자박람회에서 PM(분말야금) 부품생산공장 설립 관련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빌딩(임대용, 투자용), 토지(상무지구 상입지역), 기타용도, 상가매매상무지구, 상무역세권, 부동산 교환상담 환영.

금호부동산컨설턴트. 급매부동산전문. 아파트(급매 매물), 주택(급매 매물), 상가(급매 매물), 대지(급매 매물), 기타(부동산 대출 및 임대 60~120% 매물).

국민공인중개사. (공시지가 이하 및 급매 중개 전문). 대지300평건평450평보통급1억5천200도로점, 분양가8억아파트1300세대상가매매가2억5천, 35m도로점 1층 상가 건물 약 100p 평 지분 93p 한의원 내과 직할.

경매전문회사 호남경매컨설팅. 무료 상담 062)228-6600, H.P 010-5616-8988.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2층) (법원·검찰청 정문앞, 광주은행 맞은편 2층). "23년 역사의 경매전문회사".